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오늘 2부예배는 Teestube에서 드립니다.
- 다음주일은 11월 나라주일입니다.
- 12월 3일(일) 대림절 첫 주일, 제작회
12월 10일(일) 유초등부 달란트 잔치,
12월 24일(일) Teestube에서 예배
- **집사, 권사 선거 최종결과:**
집사 신임-김종권, 집사 피택 1인-서민규, 권사 피택 3인-단주현, 백윤정, 유근임
*2부예배 후 피택자 모임
- **말씀일기문집 원고제출자:** 장년-권순아, 김성희, 김영희, 김평임, 김호정, 박승은, 배진우, 서민규, 서정인, 석호선, 손교훈, 손재호, 송인선, 오수향, 오지훈, 우선화, 유근임, 이선영, 정수연, 최성호, 최수정, 한상철, 허지은. **어린이-**김희원, 두리, 미노, 박하은, 배지엘, 배지율, 이하나, 이하임, 정원, 정이나
- **2024년도 매일성경 신청:** 다음 주일까지 김성희님께
- **세례교육:** 다음 주일 신청마감, 이후 4주간 온라인 교육
- **바이블12:** 다음 주일 신청마감, 이후 22주간 온라인 교육
- **겨자씨 모임:** 11월 18일(토) 15시, 뒤셀도르프순복음교회당
- **자유나라모임:** 11월 17일(금) 19시 30분 서민규 님 가정

◆말씀일기 일정

일/욘9:1-16 월/욘9:17-35 화/욘10:1-22 수/욘11:1-20
목/욘12:1-25 금/욘13:1-19 토/욘13:20-14:22 일/욘15:1-16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13독

◆ 예배위원 안내 ◆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12월 3일
예배기도	손재호	정수연	이미전	정기승
말씀일기		허지은		
안내위원	예배부			
헌금위원	배진우, 유근임			
애찬위원	밥상 하나	밥상 둘	밥상 셋	밥상 넷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시편 98:1)



주일예배 12:00 Teestube 믿음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 한상철 장로의 말씀일기 욥기 2:1-18 '고통 속에서도' ◀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4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서교독/Wechselwort	교독문 66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536장	다	함	께
기도/Gebet		손재호	안수집사	
찬양/Chor	왕 되신 주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창세기 42:1-25	인	도	자
설교/Predigt	흥년기에 해야 할 일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543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욥기 12장은 욥을 향한 끈질긴 사탄의 공격에 대한 내용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더 이상 슬퍼할 수 없을 만큼 슬퍼하고 고통하는 욥을 쳐서 그의 전신을 악창으로 뒤덮었다. 나는 여기서 욥이 당하는 그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 사탄을 도구 삼아 욥을 더 없는 처절한 구성팅이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평생을 함께하고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욥의 아내, 그런 그녀마저도 남편의 고통과 아픔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욥하고 그 죄의 값으로 빨리 죽으라는 원망과 애통함이 섞인 조언 아닌 조언을 한다. 이 시점에서 문득 에덴동산의 하와를 떠올리게 된다.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준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한, 즉 하나님을 버린 행위가 된 것이다. 오늘 본문의 욥의 아내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욥으로 하여금 창조주를 버리라고 욥박지른 결과가 된 것이다. 하지만 욥은 인간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삶의 모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 고통 속에서도 잊지 않았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폐부가 찢어지는 아픔을 견디며 아버지만을 믿고 기도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다니"와 같이 말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에게 내리신 모든 것이 그의 신앙을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본인의 고백을 통하여 보게 하신다. 욥기 45장 2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이 고백이 그 위대하시고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과 더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 감격에 찬 욥의 찬송인 것이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잠시 잠깐 있다가 불리움을 받는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가장 의미있고 귀한 것인지는 명백하다.

오늘을 사는 내 삶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해보자. 그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내 그 무서운 죄를 감당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날마다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이 새벽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목상을 마친다. 2023년 11월 3일 새벽에.